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이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책망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썩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흥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개역, 이사야 51:1~16]

이 사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사야를 가리켜서 간혹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쓰인 구약의 이사야가 마치 신약에 있는 복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이면서, 오늘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의 메시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똥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고 영똥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여인이 어찌 젓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설령 여인이 젓먹이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고 나는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십니다.

또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나는 네 어미를 내어 보낸 적도 이혼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네 어미가 스스로 집을 나갔고 범죄했지 내가 내어 보낸 적도 이혼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잊은 적도 내어 버린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똥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 너희 자신을 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처음에는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본문에 어떻게 잘 나타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합니다. '나를 들을지어다'를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내 말을 들으라' 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입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다음 내용과 비교해보면 같은 내용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과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2절 중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는 말씀도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본래는 저런 흠더미였는지

반석에 커다란 구멍이 우묵하게 있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땅에 우묵한 구덩이가 보이거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흠으로 이런 나를 만드셨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묵한 바위를 보면서 '저 단단한 바위에서 일부를 파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도 좀 단단한 사람이 있고 조금 무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와, 나는 반석에서 파낸 인간인가보다?' 혹은 '우리 집의 누구는 순물살인데? 아마 진흙 구덩이에서 만들어 내었나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묵한 곳을 보면서 '여기에 누워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어 이런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흠이 땅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을 때에 무슨 감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흠덩이를 하나님은 이런 멋진 인생으로 만드셨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흠더미로 누워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를 몰아오거나 개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거나 간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누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흠더미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움푹 팬 곳이 있거든 '저기가 내가 누웠던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좀 더 가다가 구덩이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건 우리 형님 자리고 저건 우리 사촌이 누웠던 자리고... 본래 인생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감격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 고아들을 주어다가 훌륭하게 키워 놓았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양부모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유명 선수들도 무명시절 아무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자기를 맡아서 이렇게 키워주신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면 될수록 어릴 때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시절에 나를 키워준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땅에 움푹 팬 곳이 보이거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런 존재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몸이나 다름 바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후손을 가졌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왜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희를 생산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흠구덩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이 많은 무리를 생산해 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백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가 이렇게 큰 민족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나 여호와와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자를 통해서도 다시 자기 민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 죽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나 다름없던 아브라함과 사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끌어 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는 말씀은 바로 너 자신을 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나 자신을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니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이 보이십니까?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내 모습이 저런 구덩이였지 않느냐? 그런 구덩이에서 불러내어 이런 멋진 인간으로 만들어 냈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구덩이를 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너 자신을 보라는 얘기고 너 자신을 만들어 낸 하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자식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혹시 나가시다가 구덩이를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영 형편이 없는 내 인생을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감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속에서도, 한 민족이 포로로 살면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건장한 민족으로 만들어 내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너 자신의 모습을 보던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던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뜻이고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에덴동산같이 만들 것이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3절을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황폐한 시온을 에덴같이 만들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흠구덩이에서 너를 멋진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 왜 어렵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3절 뒷부분에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은 슬픔밖에 없고 포로로 살아가는 절망감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날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약속이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리다가 좋은 날이 올 수가 있겠나?' 하는 절망감이 엄습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황폐하고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에덴동산같이 바꾸어 버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과 절망감 속에서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흠구덩이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때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치던 분이 고비를 잘 넘겨서 이혼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고비가 있었음에도 나중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 옛날을 되돌아보면 아찔한 때가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라도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을 에덴동산같이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내게 귀를 기울이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4절 봅시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또 설명을 해 나갑니다. 두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깨끗하게 정돈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4-6절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율법과 공의의 근원이기도 하고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는 자이시기도 합니다.

율법과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임할 구원과 심판도 전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6절 뒤편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데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공의도 영원합니다. 공의는 함부로 쓰기가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의 빛이요 구원이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랑을 거부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시험을 만들어 두었을 리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닙니다. 상줄 때에는 확실하게 상을 주면서도 벌을 주실 때에는 확실하게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상을 주건 벌을 주건 하나님께서 한번 시행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은 없다? 니 맘대로?

반면에 인생은 무어라고 말하는지 6절을 봅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연기 같은 것입니다. 또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땅아 없어진다는 얘가지요.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인생은 연기 같기도 하고 옷처럼 닳아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8절에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좀이 쏘고 벌레가 먹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12절에 보면 **‘풀같이 될 인자**라고 말합니다.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실감이 잘 안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권세나 힘이 오래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로는 저 권세들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력이나 그 인생의 찬란함이 풀과 같다는 겁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은 그렇게 긴 존재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 없으면 하나님도 없을 건데? 간이 많이 부은 이야기지요. 그 때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그 누군가가 너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소리 하지마라.” 그 친구가 그 말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어떡할 거냐?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고 죽었는데 죽고 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이더라면? 아마도 기절초풍할 겁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화장을 해서 깨끗이 없애버렸다고 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다 살아납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학대자의 분노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죽은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부활시키겠습니까? 살려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성격을 지닌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다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든지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백년을 살다가 간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서 영생을 줄 것인지 영벌을 줄 것인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러하다 치고 당장 현실적으로 포로 생활이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를 압제하는 저 바벨론의 권세가 두려운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을 일러 주십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바벨론 나라를 때려 부숴버리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9, 10절을 봅시다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배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릴 때 내가 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며, 세상만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내가 기도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주무시나이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요한 것은 힘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 위대한 역사를 한 번 더 보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9절을 보세요.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여러분, 이 깨소서가 무슨 뜻입니까? 깨뜨린다는 표현도 있고, 잠에서 깬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깨소서라는 것이 깨뜨리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라는 표현일까요?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늘 이렇게 엉뚱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엉터리 기도를 하는 데에도 답변을 참 잘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옛날에는 우리에게 많이 행하셨지 않나요?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17절부터 5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참고 발언을 주신 것이 16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9절 뒤편에 보시면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민다는 것은 칼로 찌꺼 베어낸다는 표현이지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생 라합은 사람인데 사람을 저미시고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원어 상으로 보면 기생 라합과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글자가 다릅니다. 이 라합은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말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바다의 괴물을 하나님께서 생선 회치듯이 찌꺼 저미시고 그 다음에 용을 찌르는 것입니다. 바다 괴물과 용은 둘 다 애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시고 애굽을 징계하실 때에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과거에 애굽에 하셨던 것처럼 한번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행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 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없다면 간접 경험이지만 우리 앞서 간 선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체험했는지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남겨놓았던 그 이야기들을 좀 배우시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교회를 공부해보면 교회 그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교회를 전공한 목사님은 따로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아무거나 꺼내서 펼쳐놓으면 그것이 멋진, 감동어린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면 이런 교회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공부시간이나 설교시간에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결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압제받고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주시기 전에 내가 저 구덩이에 누워 있지 않았느냐? 저 흠구덩이에서 나를 불러 내셔서 이런 인생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들이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혈혈단신으로 자식마저 갖기를 포기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요.

사막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물도 없고 황폐하기 그지없는, 도무지 살아가기 힘든 그 사막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막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안개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인생은 안개같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혹시 옷이 좀에 상하여 버려질 상황이 되었어도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리기 전에 우리 인생이 이러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만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를 압제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게 아닙니다.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